

12-26 (통권 제 497호)

2012. 7. 20.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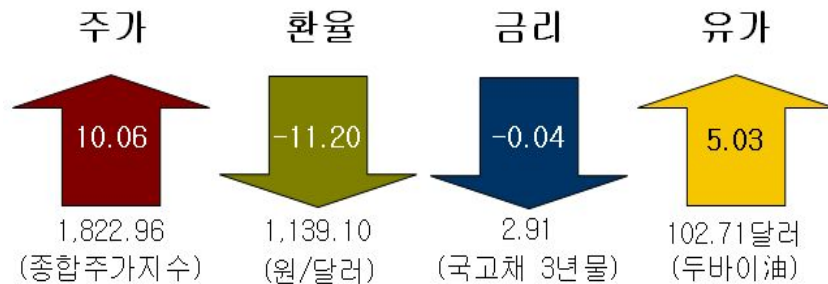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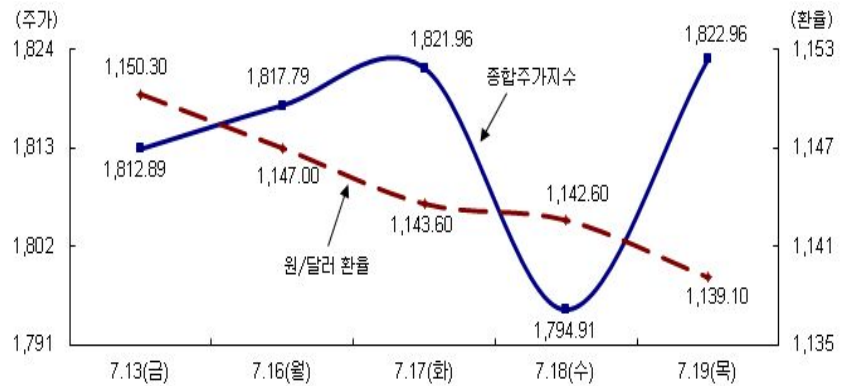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중국 경기 부진 속 기대 요인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13~7.19)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중국 경기 부진 속 기대 요인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한 재 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 이 부 형 연구위원 (2072-6306, leebuh@hri.co.kr)
- 정 민 선 임 연구위원 (2072-6220, chungm@hri.co.kr)

Executive Summary

□ 중국 경기 부진 속 기대 요인

■ 중국 경기 하락세 지속

상반기 중국경제는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경기가 크게 둔화되었다. 수출 증가율은 2/4분기 10%를 상회하고 있으나, 상반기 전체 8% 증가에 그쳤다. 소비와 투자도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2/4분기 경제성장률은 7.6%를 기록 '09 년1/4분기 이후 약 40개월 만에 7%대로 하락하였다.

■ 경기 회복 여력 평가

하반기 이후 중국경제의 급속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경기급락(경착륙)은 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소비 개선 여력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소비의지, 부동산구매의지, 자동차구매의지 등 도시가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구인배율 상승, 임금상승, 물가하락 등으로 민간소비 여력도 확대되고 있다. **둘째, 투자 회복 가능성도 엿보인다.** 기업수익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투자는 여전히 20%대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수출수주, 기업수익성 등 체감경기 개선, 지방 發부동산시장 회복 가능성 존재, 제조업 투자 증가율 상승 등 투자 회복 가능성이 상존한다. **셋째, 수출 경기가 소폭이나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수출 증가율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도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다. 향후 중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인 미국과 아시아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중국의 외수환경도 미약하나마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체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회복세는 미미할 전망이다. **넷째, 경기선행지표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 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PMI 지수와 향후 경기 방향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가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지수 (BCI, Business Climate Index)도 둔화세가 약화되고 있다. **다섯째, 경기급락 방지를 위한 충분한 경기 부양 여력이 있다.** 재정측면에서는 우선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GDP 對比정부부채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재정투입 여력이 크다. 또한 금리도 2008년과 비교해 지급준비율 및 예·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완화 여력도 충분한 상태이다.

■ 시사점

하반기 이후 중국경제의 급락은 없을 것으로 기대되나, 소비와 투자 촉진 등 중국정부의 내수중심 성장구조 전환 정책 추진 등으로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구조 전환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소비재 수출품목 확대,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 확보, 신 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기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지역별 성장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향후 중·서부 및 동북지역 개발 러시에 대비해 인프라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동부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 지역 시장에 대한 시장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신흥시장 개척 가속 등을 통해 중국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야 한다.**

1. 중국 경기 하락세 지속

○ 상반기 중국경제는 내·외수 동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 둔화세가 지속

- 지난 2/4분기에 계절적 요인으로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회복하였으나, 상반기 전체 수출 증가율은 급락

- 수출 증가율은 계절적 요인으로 2/4분기 전년동기대비 10.5%로 1/4분기 7.6%에 비해 증가했으나, 상반기 전체 8%대에 그침
- 또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상반기 전체 외수경기 회복세는 지연

- 내수부문 경기도 소비와 투자 모두 전년에 비해 둔화

- 소매판매 증가율은 '12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14.8%에서 '12년 2/4분기 13.9%로 둔화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2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20.4%로 동년 1/4분기 20.9%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
- 또한, 산업생산 증가율도 '12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11.6%에서 동년 2/4분기 9.4%로 둔화. 올해 4월부터 연속 3개월 10%대 이하로 하락
- 이로 인해 2/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09년 1/4분기 이후 약 40개월 만에 7%대로 둔화

<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구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GDP	10.4	9.7	9.5	9.1	8.9	9.2	8.1	7.6
산업생산	15.7	14.4	14.2	14.2	12.8	13.9	11.6	9.4
소비	18.4	16.3	17.2	17.3	17.5	17.1	14.8	13.9
투자	23.8	25.0	25.6	24.9	23.8	23.8	20.9	20.4
수출	31.3	25.3	22.4	20.6	14.3	20.3	7.6	10.5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해관총서.

주 1. '12년 2/4분기 산업생산, 소비(소매 판매)와 수출 증가율은 4, 5, 6월 평균치 기준.

2. 투자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누계 기준.

2. 경기 회복 여력 평가

○ (소비 개선 여력 증대) 고용 확대, 임금 상승, 물가 안정 지속 등으로 소비 회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상반기 중국경제는 투자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으로 침체된 가운데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상반기 전체로는 소폭 상승

·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최측근 고점인 '11년 2/4분기 5.1%p에서 올해 2/4분기 3.9%p까지 하락했고, 순수출도 '12년 2/4분기 -0.6%p로 6분기 연속 마이너스

· 반면,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12년 1/4분기 6.2%p에서 동년 2/4분기 4.5%p로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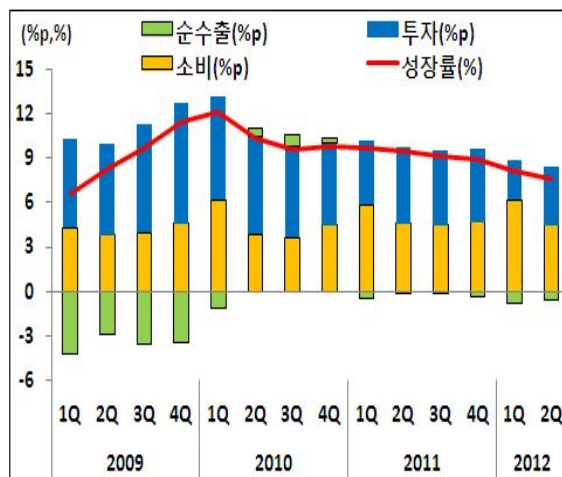
- 최근 도시가계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어 민간소비 회복 기대

· 구인배율(구인수/구직자수)이 '12년 1/4분기 1.1배로 최측근 저점인 '08년 1/4분기 0.86배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1인당 평균 임금도 '12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하는 등 상승세 지속¹⁾

· 소비자물가지수도 '12.6월 전년동월대비 2.2%로 둔화, 최측근 고점인 '12.3월 4.6%보다 2.4%p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완화

· 도시가계의 양케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년 2/4분기 소비의지, 부동산구매의지, 자동차구매의지가 1/4분기보다 상승하며 소비 확대 가능성이 증대

<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도시가계 양케이트 조사 >

(%)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1/4	2/4
소비의지	142	170	172	176	175	193
부동산 구매의지	154	146	142	139	141	157
자동차 구매의지	-	132	129	139	146	151

자료 : 중국인민은행.

- 주 1. 본 조사는 전국 400개 은행지점당 50명씩을 추출, 총 2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2. 소비의지는 '보다 많이 소비하겠다', '보다 많이 투자하겠다' 가운데 '보다 많이 소비하겠다'의 응답비중.
 3. 부동산 및 자동차 구매의지는 향후 3개월 이내에 구입하겠다는 응답비중.

1) 2011년 25개의 주요 도시 및 성의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평균 21.7% 상승.

○ (투자 회복 가능성 상존) 최근 건설 및 설비투자 증가율 둔화세가 약화되고 있고, 기업 경기 체감도도 개선되고 있는 등 투자 회복 가능성 상존

- 기업 수익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대의 높은 투자 증가세 유지

-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기 냉각에 따른 업황 악화로 기업 수익이 '12.1월 -5%에서 5월 -2.4%로 5개월 연속 경영손실 지속
- 하지만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꾸준히 20%를 상회하고 있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증가율 둔화세도 약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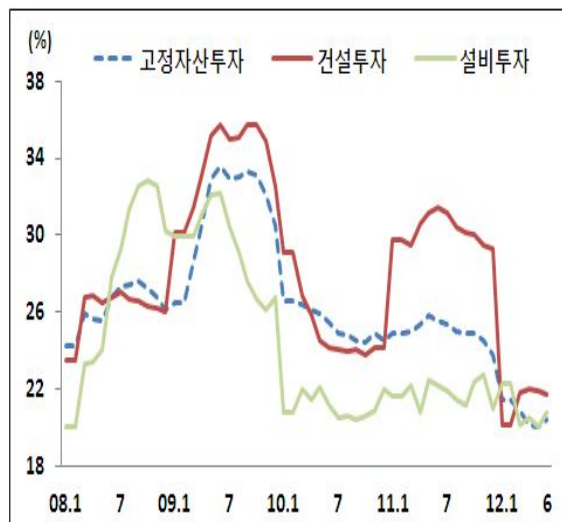
- 더욱이 중국내 기업가들의 수출수주, 기업 수익성 등 부문별 체감도 개선, 지방發 부동산시장 회복 가능성 고조, 제조업 투자 증가율 상승 등 투자 회복 가능성 상존

- 중국 기업가 대상 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수주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이 '12년 1/4분기 46.9%에서 동년 2/4분기 48.8%로 소폭 상승
-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은 '12년 1/4분기 51.2%에서 2/4분기 52.6%로 상승했으며, 은행대출태도도 완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2년 1/4분기 33.8%에서 동년 2/4분기 35.2%로 상승
- 한편, 부동산 시장의 경우 허난성, 허베이성 등 일부 지방에서 이미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제조업 투자 증가율도 '12.5월 전년동월대비 24.4%로 4월 24.3%보다 소폭 상승

<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추이 >

< 5000社 기업 경기 조사 >

(%)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1/4	2/4
가시경제 과열도	51.5	50.7	47.7	41.7	39.2	37.3
기업가 심리	76.3	75.8	70.2	68.4	70.2	67.5
국내 수주	56.9	56.7	55.3	53.2	50.5	50.2
수출 수주	51.5	52.5	51.6	48.7	46.9	48.8
은행 대출태도	35.8	33.2	31.3	30.5	33.8	35.2
기업 수익성	58.2	58.7	57.6	55.5	51.2	52.6

자료 : 중국국기통계국.

주 : 고정자산투자는 누계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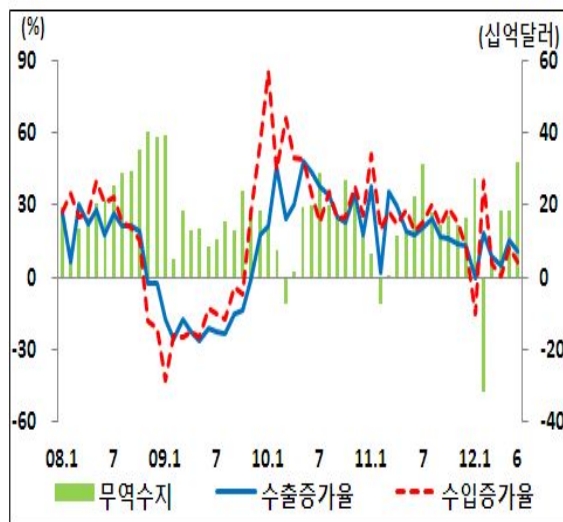
자료 : 중국인민은행.

1. 본 조사는 5,754개 업체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 비중률(상승/중하리/비중)을 이용하여 경기를 판단하는 지수로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하는 BSI 지수로 500이 기준
2. 설문은 '긍정, 부정, 유지' 등 응답자가 경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진행 및 산정.

○ (수출 경기 소폭 회복 기대) 하반기 들어 세계 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중국의 수출 경기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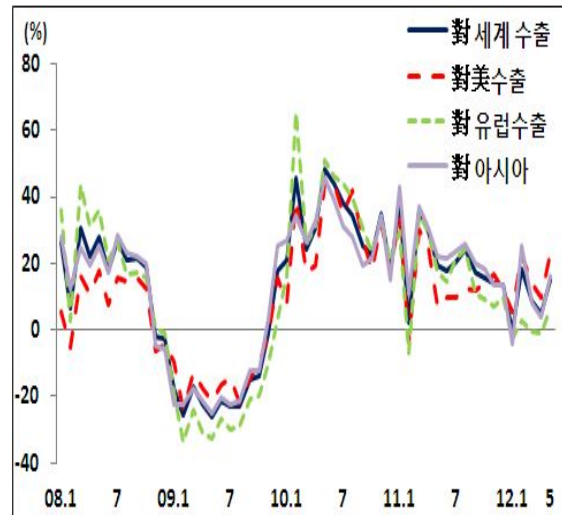
- 최근 수출 경기가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역수지도 4개월 연속 흑자
 - 수출 증가율은 '12.1월 -0.5%로 급감한 후 4월까지 등락을 거듭하다 5, 6월에는 각각 15.3%, 11.3%로 대폭 상승²⁾
 -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12.2월 315억 달러 적자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
- 향후 수출 경기도 중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인 對미국, 對아시아 수출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나, 전체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경기 불확실성으로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
 - '12.5월 對美 수출 증가율은 23%로 올 들어 최고 수준으로 상승
 - 對아시아 수출 증가율 또한 '12.5월 16.1%로 4월 4%보다 12.1%p 급등
 - 對유럽 수출도 '12.5월 6.5%로 '12.4월 -1.2%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럽 경기 불확실성 상존으로 對유럽 수출 경기 불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



자료 : 중국해관총서.

< 중국의 국별 수출 증감률 추이 >



자료 : 중국해관총서.

2) 내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5월 늘어난 조업일수,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신규 주문 물량이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음 (인민일보, 6.13).

○ (경기선행지표 하락세 다소 둔화) 최근 거시경제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고, 기업경기지수의 둔화세도 약화

- 경기동행지수는 하락세가 약화되고 있고, 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PMI 지수와 향후 경기 방향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도 둔화

· 경기동행지수는 '11.12월 99.3p에서 '12.5월 97.8p로 둔화되었으나 하락세는 다소 둔화

· 다만 PMI지수는 12.5월 50.2p로 여전히 50p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도 '12.5월 97.8p로 100p 이하로 하락했지만 둔화폭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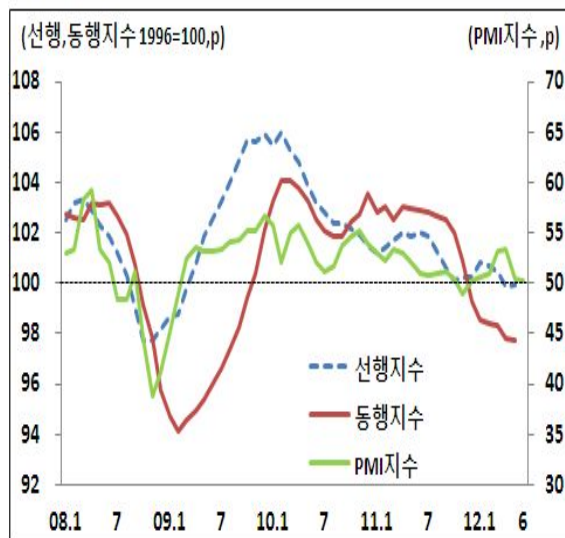
- 또한 생산(제조업)과 투자(부동산) 관련 경기지표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기업경기지수(BCI, Business Climate Index)도 둔화세가 약화

· 기업경기지수는 최측근 '12년 4/4분기 127.8p에서 '12년 1/4분기 126.9p로 둔화세가 약화

· 부동산경기지수는 '12년 2/4분기 109.2p로 동년 1/4분기 108p보다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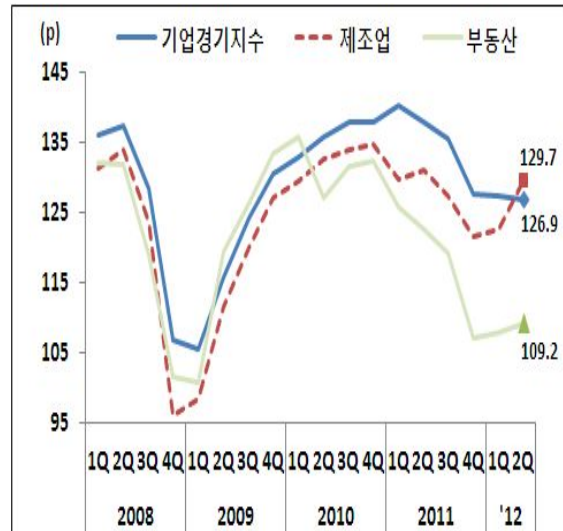
· 제조업경기지수도 '12년 2/4분기 129.7p로 동년 1/4분기 122.8p보다 대폭 상승

< 중국의 경기 선행 및 동행 지수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중국의 기업경기지수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 1. 중국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경기지수.

2. 기업경기지수란 경영자가 본인 기업에 대한 경영상황을 판단 및 예측해서 이를 지표로 산정한 경기지수로 지수 범위는 0~200 사이이며, 100 이상일 경우 경기 상승 및 개선 의미.

○ (경기 부양 여력 존재) 중국 정부는 탄탄한 재정적 여력과 금융완화 수단 등 경기 부양 촉진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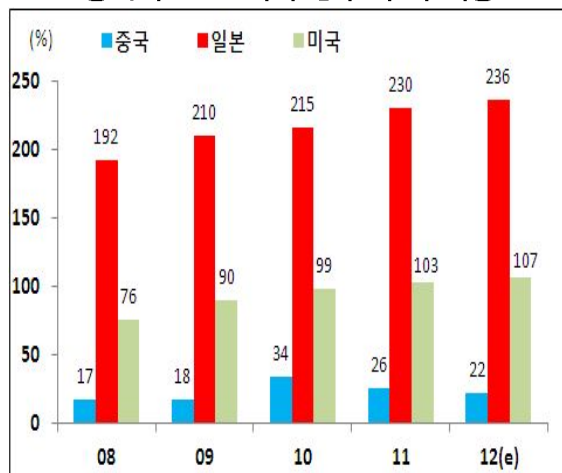
- 본격적인 내수 경기 부양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 구비

- 중국경제는 지난 '09-'10년 2년간 4조 위안의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경기를 회복
- 이번 경기부양('12.1~)³⁾은 지난 때와는 달리 소규모 재정 투입으로 일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적 여력은 충분하며, GDP 對比 정부 부채 비중도 미국 103%, 일본 230%에 비하면 건전한 수준
- 이에 따라, 최근 新가전하향⁴⁾, 자동차 구매세 인하 등의 내수 확대를 위해 보조금 정책 시행⁵⁾을 위한 재정 투입 부담은 크지 않으며, 향후 대규모 경기부양도 사실상 가능한 상태

- 또한, 기준율 및 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긴축완화 정책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단도 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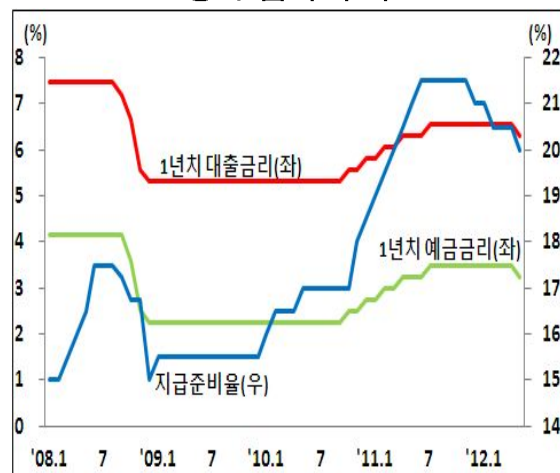
- '12.5월 지급준비율(대형금융기관)은 20%로 지난 2월 20.5%p보다 0.5%p한데 이어 예·대 금리도 지난 6월 8일에 각각 3.25%, 6.31%에서 7월 6일 각각 3.0%, 6.0%로 현행보다 각각 0.25%p, 0.31%p 인하 조치 단행
- 중국은 지난 '08.6월(17.5%)부터 '08.12월(15.5%)까지 기준율을 2%p 인하했고, 대출 금리도 '08.10월(7.2%)부터 '08.12월(5.31%)까지 1.89%p 인하한 바 있어 아직까지 금융완화 여력은 충분

< 중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 >



자료 : IMF.

< 중국 금리 추이 >



자료 : 중국인민은행.

- 3) 지난해 12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예정되었던 정책이 중국 경기둔화로 예정보다 앞당겨지고 있음.
- 4) 가전하향(家電下鄉)이란 가전제품 구매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조금 지급 제도로 '09-'11년까지 시행되어 오다 올해 再 시행될 예정.
- 5) 5월 16일 국무원에서 향후 1년간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대해 363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세부적 시행은 6.1일부터 시작.

< 중국의 주요 경기 대책(2011년 말 ~ 2012년 6월말) >

구분	주요 정책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구조 전환 고려한 안정 성장 추진 - 환경, 연구개발, 국민생활 관련 분야 중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철도정비 재가속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 : 2조 위안의 여신 확보 - 省에너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 1,700억 위안 규모 예산 마련 - 국가 주요 프로젝트 승인 및 실시 가속 : 2개 제철소 건설에 1,350억 위안 투입 - 7대 전략 신흥 산업 발전계획 달성을 위한 20대 프로젝트 발표 - 국유기업 지배우위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발표 - 저소득층 대상 주택 공급 촉진 : 중앙정부의 지도, 지방정부의 보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취득자 대상 주택론 우대 : 우대금리 확대, 대출조건 완화 - 지방의 부동산 통제정책 미세조정 묵인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가전, 에코카, 省에너지 조명, LED 등의 구입에 대한 재정지원 : 363억 위안의 보조금 관련 소비효과는 3,000~5,000억 위안 기대 - 자동차 폐차 보조금 지급 및 농촌대상 자동차 보급책 재개(중경시) : 이구환신(以舊換新)*제도 부활(2012년 연말까지)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인하 - 대출금리 인하, 은행대출조건 완화 : 금리규제 완화, 바젤Ⅲ 실시 시기 연기, 대출 리스크 가중치 재검토 - 중소기업 사모채 발행,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등 지원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세 환급 절차 간소화 및 환급 범위 확대 등의 수출 촉진책

자료 : 理財周刊('12.6.4)의 대내외 최근 보도자료 참조.

주 : 이구환신제도는란 '09-12년까지 실시한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중고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 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소비부양을 위해 실시, 올해 6월 13일 중국정부에서 자동차 품목에 대해 再시행안 발표.

3. 시사점

- 중국경제는 최근 일시적인 소비 여력 확대, 투자 및 수출 경기 회복 등 주요 지표의 개선으로 하반기이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대폭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하반기부터 중국경제의 회복으로 경기 급락 가능성은 약화되나, 빠른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움
 - IMF(2012년 7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중국이 8.0%, 미국 2.0%, 일본 2.4%, 아시아 7.1%로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유로 지역은 -0.3%로 마이너스 성장 전망
 - 중국 역시 '바오빠(保八)'를 포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의 8%에서 7.5%로 하향 조정하면서 고성장보다는 안정적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음
 - 특히, 중국경제는 구조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이 우려
 -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60-70년대부터 1인당 GDP가 4,000달러를 넘으면서 성장률도 완만하게 하락
 - 중국은 '10년 1인당 GDP가 4,000달러를 초과 하였으며, 중국정부도 고도성장보다는 내수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정책 선회
- 중국경제가 고성장 기조를 포기하고 내수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전략을 수정함에 따라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에 대처하여 우리 경제도 對中 무역구조 개선과 함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장기적인 플랜 수립 필요
 - 향후 중국은 외수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구조를 전환함에 따라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보다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대비한 전략 마련 필요
 -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소비재 수출 품목 확대,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 확보, 신 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기업 전략 마련
 - 중국의 지역별 성장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 마련 시급
 - 중·서부 및 동북지역 개발 러시에 대비해 인프라시장 진출 전략 마련과 함께 동부 연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 지역 시장에 대한 시장전략 수립 필요
 -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 개척 가속 등을 통해 중국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야 함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한재진 (02-2072-6225, hzz72@hri.co.kr)
 연구위원 이부형 (02-2072-6306, leebuh@hri.co.kr)
 선임연구원 정 민 (02-2072-6220, chungm@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0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3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4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0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7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7월 13일	7월 19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49	1.51	0.02%p
	엔/달러	81.19	80.66	77.66	79.32	78.77	-0.55¥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207	1.2278	0.0071\$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777	12,943	166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8,724	8,796	7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2.95	2.91	-0.04%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50.3	1,139.1	-11.2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812.9	1,823.0	10.1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7월 13일	7월 19일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87.17	92.53	5.36\$
	Dubai	88.80	106.75	104.89	97.68	102.71	5.03\$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293.96	304.97	11.01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F)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6.3	3.8	3.4	3.6	2.9	3.9	3.5
	민간소비 (%)	4.4	2.9	1.6	2.3	1.7	3.3	2.5
	건설투자 (%)	-3.7	-7.1	-3.0	-5.0	1.9	2.4	2.1
	설비투자 (%)	25.7	8.9	-1.1	3.7	6.0	6.7	6.3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294	81	184	265	55	75	130
	무역수지 (억 달러)	412	153	155	308	80	116	196
	수 출 (억 달러)	4,664	2,736	2,816	5,552	2,752	3,047	5,799
	(증가율, %)	28.3	23.6	14.9	19.0	0.6	8.2	4.5
	수 입 (억 달러)	4,252	2,582	2,662	5,244	2,672	2,931	5,603
	(증가율, %)	31.6	26.7	20.2	23.3	3.5	10.1	6.9
소비자물가 (평균, %)		3.0	3.9	4.1	4.0	2.8	3.0	2.9
실업률 (평균, %)		3.7	3.8	3.0	3.4	3.5	3.1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56	1,102	1,114	1,108	1,140	1,110	1,12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